

# 박지원·조정식·김태년 3파전...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시작

첫 권리당원 투표... 내일까지 진행 후보들, 당원 표심 의식 메시지 과반 득표자 없으면 상위 2명 결선

더불어민주당이 11일부터 이틀간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기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시행한다. 박지원(5선)·조정식(6선)·김태년(5선) 후보(기호순)의 3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 선거부터 처음으로 반영되는 '당심'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의원 현장 투표(80%)를 거쳐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경선을 거친 후보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 확정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현재 152석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 경선 승자가 사실상 국회의장이 된다.

이번 선거는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처음 적용되는 '권리당원 20% 룰'이 주요 관전 요소로 꼽힌다. 의원 투표 비율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부터, 기자회견 시간 순), 조정식, 박지원 의원이 각각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은 기존 100%에서 80%까지 줄인 만큼, 강성 당원을 의식한 발언이나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1942년생으로 국회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 후보는 지난 4일 "저는 마지막"이라고 강조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낸 박 후보는 검찰개혁·사법개혁 완수 등을 내걸

며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지원 후보는 지난 8일 공개된 정견 발표에서 "정치는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협치가 안 되면 강력한 국회의장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조정식 후보는 지난 8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극한 대치 상황일수록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결론을 내는 것"이라며 "협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상을 독려하되 기한을 정해나, 이를 넘기면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한 친명

(친이재명)계 최다선 의원이다.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지낸 김태년 후보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을 표방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임위원장이 이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의장이)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해서 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상임위원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봤다"고 했다.

경기 성남 지역구 5선인 김 후보는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도 강조하고 있다.

결선투표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이번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상위 득표 2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권리당원 투표는 사전에 1~3위를 뽑는 '선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표를 결선 후보자의 득표에 가산할 계획이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 민주 "균형발전" vs 국힘 "주거안정"... 6·3 지선 1호 공약 발표

與, 지방주도 성장 위한 5극 3특 체제 재정 확충·지방자치권한 강화 등 담겨 野, 서울·수도권에 '반값 전세' 도입 규제 철폐·신산업성장 통한 경제 도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각각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균형발전', '주거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각 정당 지방선거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순위 정책으로 공개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 3특 체제 완성',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가 담겼다.

민주당은 이행 방법으로 5극 완성 및 3대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 자치권한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 행정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에서 참석해 있다. /뉴스시스

완성 등을 내세웠다.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은 오는 7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재정 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생활기반시설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육성·성장 기반 구축 ▲청

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및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국가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기후위기대응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순위 지방선거 정책 공약으로 꼽았다. 국비, 지방비, 주택 기금을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변 가격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울 및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며,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인 총급여 8000만원·공제율 17%에서 각각 9000만원·22%

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제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총급여 6500만원 이하 가구는 환급형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 개편 및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 내일 보장 ▲직장인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 형성 지원 ▲과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거리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체질 개선을 통한 민생경제 대도약 ▲교육사다리 복원 ▲안전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도 공약에 담겼다. /박경수 인턴기자

# 민주 지도부 강원 집결... 우상호 지원사격

정청래 "대도약 이끌 행운의 열쇠" 우상호 "지방시대 대전환 완성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강원도를 찾아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강원 공천자대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인 우상호는 강원도의 융성과 대도약을 일으키는 행운의 열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이것이 6·3 지방선

거 우리의 구호이고 깃발"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3년 동안 경제도 '폭망'하고 국격도 떨어지고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 정적 제거 등 살벌한 단어가 난무했던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화의 길로 매진하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놀라운 케이(K)-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앞길을 비춰줬던 것을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과 그 빛과 함께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라며 "이것은 대통령 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11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동면에서 열린 강원 공천자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자만 잘한다고, 춘천시장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강원지사, 춘천시장, 시군구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뚫돌 뚫돌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함께 어울려 맞물려 돌아가는

강원도의 비전도 여러분들께서 가꿔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공약화해서 착불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방식의 상향식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한다"며 "강원도에서 우상호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들께서 제시한 길,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각,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보면 남파 우상호가 대통령과 한마음 한 뜻으로 강원도의 융성과 강원도의 대도약을 일으키는 행운의 열쇠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우상호와 함께 대한민국 변명의 길, 강원도 재도약의 길로 함

께 나아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천자대회에는 정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와 6·3 지방선거 강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지방시대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완성해야 한다"며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변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대한민국의,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 지지율이 앞선다고 해서 웃고 다닐 여유가 없다"며 "단 한 명도 당선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후보가 없도록 다 같이 긴장해서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보탰다. /박경수 인턴기자